



## 國際圖書館機械化會議에 다녀와서

金 光 永  
外交安保研究院圖書課長

1980년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南加州大學 주최 국제도서관기계화회의에 참석하고, 2월 9일부터 16일까지 하바드대학 도서관, 컬럼비아대학 도서관, 미의회 도서관 등을 방문한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국제적인 관점에서 도서관기계화의 방향, 한국 도서관의 위치·문제점·협력방안 등을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해외여행은 이번에 세번째인데, 1974년 9월부터 1975년 3월까지 미국 대학도서관에서의 실습이 있었고, 1978년 8월부터 1개월간 英國 및 日本圖書館界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만차 미국 사회에 대한 이해나 언어상의 문제는 없었다.

### 1. 국제도서관기계화회의

이 회의는 2부로 나누어 지는데, 제 1부는 데이터 베이스에 관한 내용(80년 1월 28일~2월 3일)이고, 제 2부는 도서관 기계화에 관한 내용(80년 2월 4일~2월 8일)이다.

이 회의는 남가주대학 도서관학교(진행 위원장 Edward John Kazlauskas 박사)가 모체가 되고, UCLA, Irvine 등 대학교수 및 도서관 담당자와 OCLC 서부 지사, Cuadra 협회 등 컴퓨터 관계회사와 협력하여 정보검색 및 데이터 베이스에 관한 내용과 도서관 기계화에 관한 내용을 교육·의견교환·업무실습 등을 하였는데, 참석자는 미국, 호주,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남가주대학 박사과정 학생 등이다.

#### 가. 데이터 베이스에 관한 내용

이는 주로 SDC(System Development Corporation), CIS(Congressional Information Service), Lockheed 등의 회사가 주체별로 개발한 데이터 베이스와 터미널을 통한 on-line 검색방법에 관한 교육 및 실습, 내지는 의견교환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보검색 시스

템과 데이터 베이스의 발전과정, SDC ORBIT 시스템 CIS와 ASI(American Statistics Index), LEXIS(법학 관계 데이터 베이스임) 등의 데이터 베이스에 관한 교육 및 실습, NASA와 ARCO(Atlantic Richfield Company), Fluor건설회사, Irvine 대학도서관 등의 정보검색 관리방법, 전략, 의견교환이 있었고, Cuadra 협회의 Non-Bibliographic 데이터 베이스에 관한 워크숍, UCLA 대학교수 Kathleen T. Bivens 박사의 「데이터 베이스의 연구방향과 미래의 발전」에 관한 발표 등이 포함되었다.

Bivens 박사의 진지한 발표내용 및 태도에 감사하며 특히 데이터 베이스가 주로 서양자료에 치중되어 있고 동양자료 및 동양문자 등에는 소홀하였다는 질문에 대하여 발표 후 2회에 걸쳐 서신으로 답변하는 자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 데이터 베이스는 주로 Bibliographic Data에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으니 만차 Non-Bibliographic 데이터 베이스는 관심이 있었으나, 참석자의 국가에 관한 무역통계, 국민소득, 정치상황 등의 대비가 터미널을 통하여 on-line으로 검색되는 데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Irvine 대학 도서관의 정보검색에 관한 설명 및 안내는 한국인 3세 Ahn, Herbert K. 씨가 담당하였는데, 비록 한국어는 잘 하지 못하나 그에게서 한국인의 기질, 맺장을 엿볼 수 있어 인상적이 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완성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배웠으나, 과연 한국자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 것인가하는 것은 배우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도서관실무자, 교수, 프로그램 실무자가 협력하여 한국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에 관한 연구·검토·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또한 80년 1월 30일 남가주대학에서 ARMA(Associ-

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dministrator)가 주최하는 '정보관리에 관한 워크숍'이 있었는데, 미국의 도서관인, 교수 등 약 200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여성들의 에리한 질문, 발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도서관기계화에 관한 내용.

이는 도서관기계화의 발전과정, CLASS의 운영방안, 목록업무에 있어서 OCLC의 서부지사서 OCLC의 활용방법, 실습과 RLIN에 관한 활용방법, 실습, 남가주 대학도서관의 수서업무, UCLA도서관의 대출업무 및 참고업무의 컴퓨터와 터미널을 통한 처리방식에 관한 교육, 의견교환, 실습 등을 하였으며, 유명한 도서관 기계화 학자인 Becker, Joseph 박사의 '국가적인 차원의 네트워크 계획과 발전'에 관한 발표가 있었고, 교육관계의 데이터 베이스인 NICEM, NISCEN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CLASS는 California Library Authority for Systems and Services의 약칭인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주립, 사립의 도서관들의 공동 수서, 목록, 상호대차, 측차간행물 종합목록, on-line 검색 등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도서관 기계화에 대한 연구 및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생각컨대 한국은 그 규모에 있어서, 혹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선진제국에서 개발한 데이터 베이스, OCLC, RLIN 등의 세밀한 연구. 검토 후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선진제국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수서, 목록, 상호대차 등에 있어서 상호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도서관업무 기계화에 관한 공동보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대체로 미국에 있어서 목록업무의 기계화는 OCLC, RLIN, WLN (Washington Library Network) 등이 개발·활용되고 있다.

OCLC는 Ohio College Library Center의 약칭으로 1977년 OCLC Inc. 회사로 되어 미국도서관의 단행본과 측차간행물의 목록작성, 상호대차, 수서업무(개발중에 있음) 등을 수행함에 있어 터미널을 통한 on-line으로 검색하고 있다.

OCLC는 1,400개 이상의 도서관이 참여하고, 검색은 LC 카드번호, ISBN, ISSN, OCLC 번호, CODEN, 저자, 서명 혹은 저자와 서명에서 비롯된 기호 등으로 수행하게 된다.

1980년 2월 4일 OCLC서부지사(안내자 Mrs. Bruce Preslan)를 방문하여 직접 터미널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RLIN은 Research Library Network의 약칭으로 Stanford 대학도서관에서 개발한 BALLOTS을 모체로 하여 발전한 연구도서관을 위한 시스템인데, 단행본과

측차간행물의 목록업무에 활용되며, OCLC 보다는 규모는 작으나, 저자·서명·주제명·분류번호·LC번호·ISBN 등으로 검색할 수가 있다.

1980년 2월 5일 남가주대학 법학도서관에서 RLIN에 관한 터미널을 통한 on-line 검색을 실습할 기회가 있었다.

1980년 2월 6일 남가주대학도서관 수서과에서 수서업무의 기계화에 관한 실습이 있었는데, Brodart 회사에서 개발한 데이터 베이스와 on-line으로 터미널을 통하여 단행본과 학술잡지의 구입·주문을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ISBN·서명 등의 검색으로 출판사항 가격의 최신정보를 터미널을 통하여 조사한 후 터미널에 부착된 인쇄기에서 상세한 서지정보를 출력하여 주문하고 있었다.

또한 UCLA의 대출업무의 기계화에 관한 실습이 있었는데, Bar-code Scanner에 의하여 on-line으로 터미널을 통하여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대출·반납·반납등록·이용자 및 이용도서의 통계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UCLA의 참고업무의 기계화에 관한 설명 및 예시가 있었는데, 소형컴퓨터(micro-computer system)를 이용하여 참고사서에게 필요한 자료로서 예를 들면 전화번호부 등을 출력, 활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다. 회의에 관한 평가

이 회의는 남가주대학 도서관학교에서 주최한 제 1차 회의였는데, 회의 구성과 진행에 있어 성실하였고 치밀하였다. 토요일에는 디즈니랜드의 견학, 일요일에는 Kazlauskas 박사택의 초대 등 스케줄이 비교적 바쁜 시간을 가졌다.

이 회의 기간 중 학교에서 지정한 호텔은 너무 고급이므로 경비절약을 위하여 시내에 위치한 한국인이 경영하는 호텔에 투숙하였는데, 로스앤젤레스가 매우 방대한 도시이고, 지하철은 없고 버스망도 좋지 않아서 곤란하였으나, 김해룡선생(전 USIS도서관장)과 최석호박사(남가주대학 도서관학교 교수)의 도움으로 문제는 해결되었다.

김해룡선생은 미8군, USIS도서관에서 20여년간 근무하였고, 현재는 미국에 이민가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출판관계업무(Harry-young Publication Service Agency)를 보고 계신데, 미국자료를 한국도서관에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1975년에 미국 서부와 하와이에 소재한 도서관과 도서관 방문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 미국의 동부에 위치한 보스턴, 뉴욕,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 2. 미국도서관방문

1980년 2월 9일 하바드대학 도서관, 2월 11일 콜럼비

아대학도서관(한국과 과장 채형석 선생), 2월 13일 미 의회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이 도서관에는 동양학도서관이 있고, 한국과가 설치 되어 있다. 공통된 의견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과 현재에도 국제교환을 잘 하고 있으나, 한국자료, 특히 정부간행물의 원활한 수집을 희망하고 있다.

1980년 2월 11일 유엔의 Dag Hammarskjold 도서관을 방문하여 유엔 간행물의 수집방법과 운영방식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도서관, 고려대도서관에 유엔기탁도서관을 설치하여 관계를 맺고 있고, 외교안보연구원에서도 유엔관계 Documents를 기증받도록 되었다.

유엔의 Document는 유엔에서 만든 기호(symbols)에 의하여 분류하고, 주제와 서명의 기호색인이 있다. 유엔자료의 microfiche가 있고, 유엔에서 나온 단행본과 축차간행물은 일반적인 자료의 정리방식과 동일하였다.

보스톤 체제시 백린선생님택에 투숙하였고, 백선생님의 안내로 하바드대학도서관, 박물관, 시내 관광을 하였는데, 특히 박물관에는 인디언의 골동품, 유물, 짐승들의 박제품, 유리로 만든 꽃 등은 인상적이 었다.

뉴욕에서는 자유의 여신상, 만하탄의 건물, 엠플이

어스빌딩 등은 좋았으나, 지하철과 거리는 지저분하였고 대체로 교통법규는 잘 지키지 않았다.

뉴욕에서 워싱턴까지는 기차를 이용하였고, 워싱턴에서는 미의회도서관 한국과 과장 양기백박사님택에 투숙하였기 때문에 미국도서관 직원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미의회도서관의 규모와 건물양식, 조각 등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미국의 사회에 있어서 컴퓨터는 생활화되어 있었고, 훌륭한 도서관 시설, 풍부한 장서, 열심히 일하도록 조직되어 있고, 업무에 자부심을 갖는 도서관인이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인정, 가족제도, 전통적인 여성의 인생관 등은 미국의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것이 우리에게 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여행도 본인에게는 매우 귀중한 기회이었다고 느껴지는데, 석사학위 논문이 도서관 기계화에 관한 것이었으며, 회의에 관계되었던 친구들을 인간적으로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끝으로 이번 여행을 수락하여 주신 강영훈원장님과 김세진연구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이번 여행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검토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 ● 80年度 會費引上 案內

會員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協助와 聲援에 대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協會는 會員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後援과 積極的인 參與로써 꾸준히 發展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自立財政의 確保라는 基本的인 問題가 아직껏 解決되지 않은 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能動的이고 활발한 事業의 展開와 會員을 위한 權益擁護의 土전을 積極 마련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實情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協會의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너나 할 것 없이 會員 모두가 몹시 걱정해 오고 있으며 그 打開策에 대하여서 누누히 論議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解決策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問題와 關聯하여 現在 協會의 唯一한 財源으로 되어 있는 會員負擔金인 會費를 引上하는 問題가 79年 定期總會席上에서 具體的으로 學論되어 80年度부터 引上키로 決議하였습니다.

協會가 제 機能을 發揮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于先 最少의 財政自立이라도 確保되어야 하겠습니까. 團體會員이나 個人會員 여러분들께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協會의 財政事情을 깊이 理解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團體會費 :	A	급	年	120,000원
	B	급		80,000원
	C	급		50,000원
	D	급		20,000원
	E	급		10,000원

個人會費 :           年       4,000원